

문화공간 비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지원사업 기획형 - 문화공간 비수기

2021 5월 - 10월

| 문화공간 비수기

김성은 신현정 이상언 최혜영

목차

- 문화공간 비수기란?	3
- 참여예술가	4
- 기업	5
- 2021 문화공간 비수기 활동	6
- 공동체상영 <비수기 영화관>	8
- 전시 <항구로부터, 신호>	19
- 전시 <코랄 유니버스>	29
- 전시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35
- 전시 <강정예술행동보고서>	38
- 수치로 본 2021 문화공간 비수기	41
- SNS를 통해 확인한 관객 피드백	42
- 감사한분들	44

- 문화공간 비수기란?



<https://www.facebook.com/spacebisugi>



<https://www.instagram.com/spacebisugi>

<문화공간 비수기 SPACE bisugi>는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의 비수기 6개월 동안 비워진 감귤 선과장을 서귀포 지역 대안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에 결성된 비수기 연구소는 해당 년도에 공간리서치작업,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연구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김성은, 신현정, 이상, 최혜영으로 이루어진 '비수기 연구소'가 강정평화상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체와 부분 사이]라는 주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며 독립예술영화 공동체상영회, 전시, 워크숍,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보고서 상설전시(46페이지 참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참여예술가 (비수기 연구소)

김성은

김그레이스나이스김치볶음밥, 그레이스나이스, 김그래있어, 김성은 등으로 불립니다. 강정마을과 인연이 닿아 제주와 베를린을 몇년간 오가다 2019년 제주도로 이주한 뒤 활동가와 영화감독이라는 정체성 사이를 즐겁게 횡단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메라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것, 공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감각하는 연대의 장으로서의 영화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또는 강정에서 퀴어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에 대해 자주 고민합니다. 그 시각이 작업 뿐만 아니라 일상의 만남에도 잘 녹아들길 희망합니다. . <http://seunkim.com/>

신현정

문화기획자 겸 인권활동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침없이 움직이는 중.

<https://blog.naver.com/jmgsti2>

이상언

주로 거리예술(공공공간 예술) 장르에서 공연을 매체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거리’는 행위가 펼쳐지는 장소 또는 배경으로서의 용도를 넘어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상의 거리’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추구한다. 일상성과 장소성, 그 시간, 그 장소에 이미 형식과 이야기와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 아름다움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작업한다. ‘거리는 누구의 것인가?’ 혹은 ‘거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장르 간 융복합, 형식의 해체, 이동형, 참여형 등을 비롯한 새로운 형식들을 발견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관한 관심과 작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작업 안에서 관객 및 시민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떠한 공동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과 실험을 하고 있으며, 관객과 장소가 함께 작품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한 것 외에도 특정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형식과 창작론을 개발/서치하여 실행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르와 매체의 경계없이 여러 분야의 창작/연출/기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http://e-sang.org>

최혜영

최혜영은 강정마을에서 평화활동가로 제주에 산다. 지금은 독립기획자이자 다큐 멘터리 프로듀서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강정 연산호 조사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했다가 자연 스럽게 수중 사진을 찍고 있다. 막아내고 지킨다는 말에 무력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순간의 아름다움을 수집한다.

<http://hyeayeong.com>

-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평화상단은 강정과 제주의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의 직거래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제주의 자연으로 키우고 재배한 선물로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정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국가폭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강정평화상단의 모든 수익금은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드는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현재는 1)지역주민의 소득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무너진 공동체 회복 3)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예술 문화 콘텐츠 제공 관련 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savejeju.net/>



강정평화상단

강 정 평 화 상 단 협 동 조 합

-2021 문화공간 비수기 활동내용



5월	비수기 영화관 공동체 상영 2회 진행		
6월	비수기 영화관 공동체 상영 1회 진행		
7월	항구로부터, 신호 전시 진행		강정예술행동보고서 상설전시 진행
8월	코랄 유니버스 전시 진행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전시 진행	
10월	비수기 영화관 공동체 상영 2회 진행		

- 비수기 영화관

- _ 독립예술영화 상영회
- _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

- 항구로부터, 신호

- _ 협동화장실
- _ 이 곳에 잠깐 놓아두려고요
- _ NO SIGNAL
- _ 흘러가는 진 퍼레이드
- _ 점액
- _ 와이파이 진 워크숍
- _ 신호와 함께 걷기

- 코랄 유니버스

- 카이렌
- 없는 노래
- 버블 샤워
- _ 움직임 워크숍
- 작가와의 대화

-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 강정예술행동보고서

2021년

5월21일
금요일

오후7시

비수기

영화관

<로맨틱 머신> +
<풍정.각 (風情.刻) 리얼타운>

01

문화공간 비수기

(제주도 서귀포시 말질로 137번길 7)

전체와 부분 사이

| 주최/주관 | 강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 후원 |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협력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기획 | 이상 | 협력기획 | 신현정 그레이스 최혜영

2021년

5월28일
금요일

오후7시

비수기

영화관

<소리, 소리, 소리>

02

소리, 소리, 소리

| 감독 강예은 | 63분 |

아이는 ()이/가 괴롭다. 어떤 소음의 고고학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선착순 20명의 관객을 받습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2379-076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름, 본인포함 총동행인 수]

문화공간 비수기

(제주도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 후원/주관 | 강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 후원 |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협력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기획 | 이상 | 협력기획 | 신현정 그레이스 최혜영

2021년

6월4일
금요일

오후7시

비수기

영 화 관

<사당동 더하기 33>

| 감독 조은 | 123분 |

한 다문화 가족이 반 지하 셋방에 막 이삿짐을 풀었다.
이 다문화 가족 가장은 33년 전 서울의 가장 큰 달동네였던 사당동 판자촌 단칸방에
모여 살던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등 다섯 식구 중 한 명이다.
이 다큐는 그 할머니 가족의 4대에 걸친 33년의 일상을 응시한다.

03

-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선착순 20명의 관객을 받습니다.
-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2379-076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름, 본인포함 총동행인 수]

문화공간 비수기

(제주도 서귀포시 말질로 137번길 7)

사당동 더하기 33
Dallinger 33 up

- 주최/주관 | 강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 후원 |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협력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기획 | 이상 | 협력기획 | 신현정 그레이스 최혜영

- 비수기 영화관



예술영화관이 없는 제주 지역에서 보기 어려웠던 신작 독립예술영화들을 상영했다. 비서사 혹은 에세이 형식의 작품, 사운드로 공간성을 표현한 작품, 난민, 이주, 재개발 등 몸의 이동이 주 제인 작품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며 ‘사이 공간’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노동공간인 감귤 선과장 기존의 분위기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고, 소리가 울리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운드가 작업에 있어 하나의 특성으로 감각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으며, 공간 분위기와 어울리면서도 장시간 앉아 있기 편한 객석으로 자동차 시트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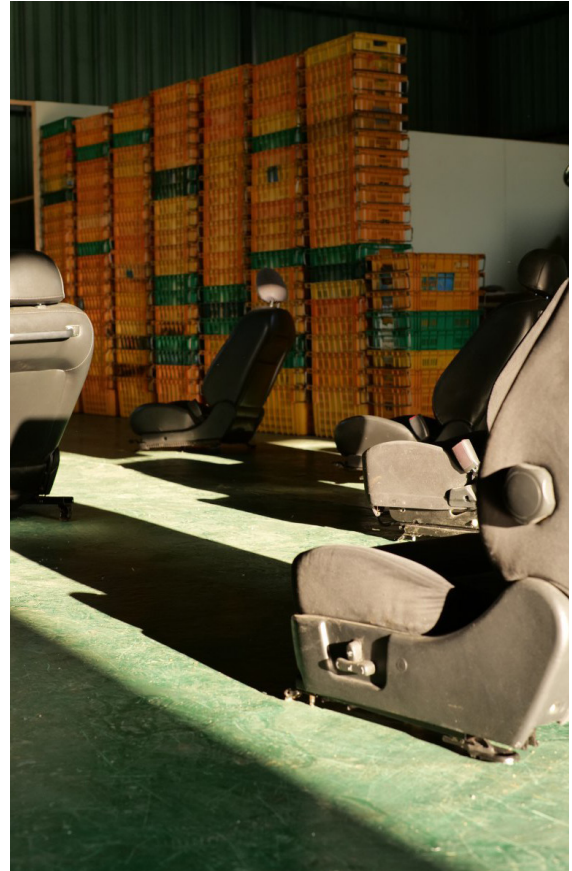


- <로맨틱 머신 & 풍정.각(風情.刻) 리얼타운> 상영회 관객 후기

우선 색다른 영화공간에 신선했고, 영화는 낯설고 놀라기도 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몰입도는 굉장히 높았다. 로맨틱머신 때 처음엔 생각이 많이 나다가(자동으로 의미해석활동을 하게 되 죠^^;;;)) 나중엔 그냥 영상에 빠져들게 되었다. 영화음악(음향)이 큰 매력이었던 영화였다. 그 리고 좌석이 정말 편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었고, 영화가 끝나고 불을 켜는 것도 평범치 않았 다. 다음 상영회 때도 시간이 된다면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 <스르, 스오, 스르> 상영회 관객후기

요번주도 비수기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왔다. 공간의 카시트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영화를 보 고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겼다. 영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영화가 주는 묵직한 불편함 때문이었다. 영화 초반에 불안불안했던 홈비디오 속의 어린 여자 아이, 감독이 어린 시절을 거치며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따라가며 끝내 그 아이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홈비디오와 퍼포먼스, 주거 공간을 드러낸 장면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이가 집에서 느끼는 억압과 종교의 폭력성이 참을 수 없을만큼 마음을 갑갑하게 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느낀 소리에 대한 불편함, 집에서의 소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척 중요했던 것 같다. 그 냥 내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 같다. 그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아이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 같다.



(사진: 이소정)

- <사당동 더하기 33> 상영회 관객후기

비수기영화관의 마지막 영화는 '사당동더하기33'이었다. 안 그래도 보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쾌재를 불렀다. 역시나 편한 시트...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였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게 봤다. 다큐멘터리는 심심하거나 지루한 적이 없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보니 그런 거 같다. 그런데 이 영화는 특히나 더 그랬다.(흡입력 최고!!!!) 이 영화를 보며 단지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 가난(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란 것을 절감하다. 원인이 물질적 결핍으로 시작할지언정 다양한 부분에서의 결핍, 방치, 소외, 낙인, 편견 등등의 사회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쳐 총 체적 '가난'이 되는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씩 워 제거해야 하거나 회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도 의문을 갖는다. 이 가족 같은 경우, (내 개인적인 서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경악할만한 장면이 있었는데...) 평범의 범 주에서는 벗어났다 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점점 삶은 나아지고 있다. 또한 위태로운 순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가고 있다. (엄청난 생명력과 단순함이 주는 활력과 낙천성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저런 나눌 얘기 거리가 많았지만 너무 늦었고 XX이를 데리고 가야했기에 서둘러 나왔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찼...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요.

OFF SEASON
CINEMA
2021.10.21.6.28.

2021 문화공간 비수기 <비수기 영화관 -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

<위켄즈>

<트러스트폴> + <섬퀴어복희> + <굿마더>

문화공간 비수기(제주도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MOVIES

SCREENINGS

문화공간 비수기

OFF-SEASON CINEMA

2021.10.21 THU 19:30

문화공간 비수기(제주도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WEEKENDS

2021 문화공간 비수기 <비수기 영화관 -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

위켄즈 | 감독 이동하 |

게이 합창단 G-보이스의 활동을 다룬 음악다큐 작품이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G-보이스 합창단은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알려내는 활동이자 친목이자 힐링의 공간이다.

영화는 합창단 자체보다 주말마다 모여 합창 연습을 하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주목하면서 이들이 G-보이스를 통해 치유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혼자'에서 '함께'로, 다시 '연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개인과 단체의 차원을 아우르면서 따뜻하게 그려낸다.



* 영화 상영 후 감독, G-Voice 단원과 함께하는 GV가 진행됩니다.

* 본 상영은 야외상영으로 진행되며, 기후상황 등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장소 변경 시(마을 내 다른 공간), 문자로 안내합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2379-0760 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름, 본인포함 총 동행인 수]

* 저녁 시간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QUEER
MOVIES | 문화공간 비수기
SCREENINGS

| 주최/주관 | 김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 후원 |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 협력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기획 | 이상 | 협력기획 | 신현정 그레이스 이상 최혜영

OFF-SEASON CINEMA

2021.10.28 THU 19:30

문화공간 비수기(제주도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TRUST FALL

SOME QUEER BOKI

A GOOD MOTHER

2021 문화공간 비수기 <비수기 영화관 -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

트러스트 폴 | 감독 이소정, 배꽃나래 |

우리는 헤어진 연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남아있는 질문이다.
너와 나의 곳곳에 남아있는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너는 나의 이름이고, 나는 너의 목소리이다. 너의 질문은 나의 이름이 된다.



섬퀴어복희 | 감독 김성은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사는 복희는 혼자 퀴어다. 퀴어 공동체를 꿈꾸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제주퀴어문화축제도 열리지 않고 데이트 어플을 켜도 죄다 아는 사람들뿐이다.
밖으로 나간 복희를 반기는 건 굴나무와 새소리 뿐. '혼자 퀴어, 혼퀴는 과연 가능할까?'
퀴어 유토피아를 꿈꾸는 시골 퀴어 복희의 로망 달성 프로젝트!



굿마더 | 감독 이유진 |

딸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살던 수미는
동료 김선생의 딸 결혼 축하 모임자리에 가게 된다.



* 영화 상영 후 감독, G-Voice 단원과 함께하는 GV가 진행됩니다.

* 본 상영은 야외상영으로 진행되며, 기후상황 등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장소 변경 시(마을 내 다른 공간), 문자로 안내합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2379-0760 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름, 본인포함 총 동행인 수]

* 저녁 시간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QUEER
MOVIES | 문화공간 비수기
SCREENINGS

| 주최/주관 | 강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 후원 |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 협력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 기획 | 이상 | 협력기획 | 신현정 그레이스 이상 최혜영

- 비수기 영화관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



서귀포 지역 내 성소수자와 엘라이가 한 공간에 만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감과 위로 그리고 재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본격 퀴어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 동시에 상영회를 준비하며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 시민들에게 ‘어디에나 퀴어가 있고, 다르지만 또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각적으로 공유되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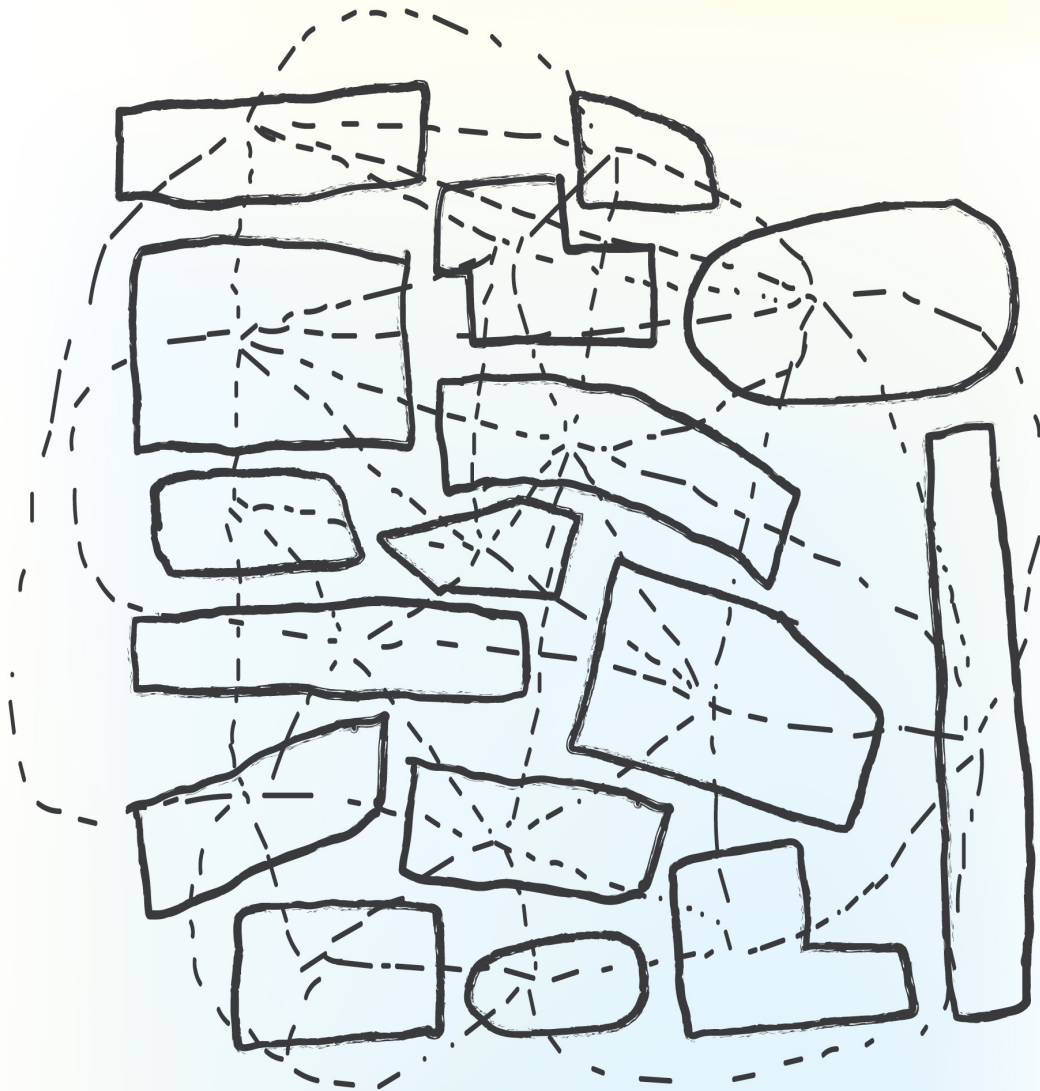
해당 상영회는 야외상영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실험을 전개했다. 문화공간 비수기의 거대한 문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였고, 상영 이후 GV를 진행했다.

- 기획자 이상 후기

“작년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소리가 울리는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영화 상영회’를 해보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관객석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공간 분위기와도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폐차장에 가서 카시트를 얻어 오고, 사운드가 주요한 영화셀렉을 그레이스에게 부탁했다. 공공공간에서 공연 창작/연출작업을 하며 지니게 되는 관점과 감각들이 독립영화 공동체상영 기획작업에도 반영되더라. 역시나 유독 ‘객석이 편했다.’ ‘낭만적인 분위기였다.’ ‘공간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쁨을 느끼는 피드백이었다.

5~6월 기간 3회에 상영회를 무사히 마치고, 지역에서 독립예술영화 향유를 원하는 관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만남의 경험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동기가 되어 예정에 없었던 퀴어영화 상영회를 2회차 추가로 더 진행하게 만들었다. 이 시간들에서 영화 자체가 지닌 힘에 대해 더 느낄 수 있기도 했고, 특히 지역에서 ‘독립예술영화’를 더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알겠지. 상영회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디그라운드스의 지원도 굉장히 컸다.”





항구로부터,
신호
2021. 6. 23. - 7. 25.

한대
조각들
2021

주관 / 주최_다이애나랩

협력_강정평화상단 x 비수기 연구소

후원_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밝고 열은 파란색에 노란색이 약간만 섞인 바탕 위에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까만색 조각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위로 드문드문 점선이 복잡하게 얹혀있다. 그 아래 손으로 쓴 것 같은 까만색 글씨가 있다. 항구로부터, 신호 2021. 6. 23. - 7. 25. 한대의 조각들2021

<항구로부터, 신호>

기획: 다이애나랩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 강정평화상단x비수기연구소

기간: 2021. 6. 23.- 7. 25.

이 전시는 세상의 무수한 항구들과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항구는 신호들을 끌어당기지만, 그 중 어떤 항구는 힘이 너무 강해 블랙홀처럼 신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놓는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주 멀리에서 너무도 느리게 움직여서, 존재하는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신호들과 어떻게 만 날 수 있을까? 거대한 힘의 방향과 성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전시의 신호들은 서로 다른 항구에서 왔다.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모호하며 때로 괴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목까지 가득 차오른 눈물을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모른 채 한밤의 항 구에 서 있는 이에게, 우리의 신호는 갑자기 굴러가는 분홍색 사과이기도 하고 누군가 토해놓은 미끈한 점액이기도 하다. 자욱이 미세먼지가 뒤덮인 바닷가에서 저 멀리,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림자를 본다.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아주 멀리 달려 갔을 때에만 희미하게 잡히는 다른 주파수에 귀를 기울인다. 신호란 무언가를 변할 수 있게 하고, 변할 수 있는 힘을 실현하는 것. 신호들은 광막한 밤의 별들처럼 드문드문 떴서 서로를 비춘다.

참여자

노들장애인야학 진수업(고지선, 김경남, 김수진, 김장기, 김주희, 김희숙, 박만순, 박성숙, 박소민, 박주원, 박희용, 손원주, 신승연, 신현상, 정지민, 이봉규, 이승미, 이연옥, 임기하, 정혜운, 최재형, 황임실), 무밍, 신원정, 주재훈, biblbg, 노들장애인야학

디자인

노다예

후각디자인

김화용

수어통역 장진석

촬영

우에타 지로, 이야기

영문번역 최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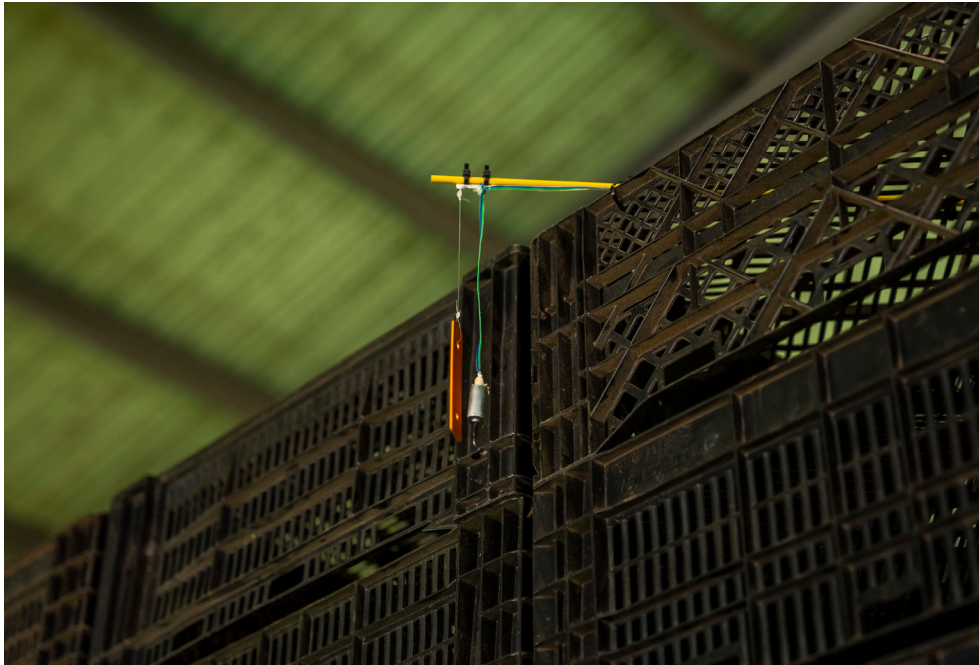
<https://www.fragments2021.ink/#/2>



<협동화장실> 나무, 시멘트, 2021 by 주재훈

아직 솜씨 좋은 목수가 못 돼서 쓸모없는 것을 만들게 될까 염려가 많습니다. 평지, 경사로, 기둥, 문, 벽, 지붕이 부디 제 역할을 해내서 찾아온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길 바랍니다.

(사진: 이야기)



<이 곳에 잠깐 놓아두려고요> 무선통신장치, 실로폰 소리장치, 2021 by 신원정
 ‘그 곳’이 ‘그 때’가 이야기가 되어 기억 속에 머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소, 그 시간
 과 어떤 정서를 나누어 갖는다. 우리가 ‘그 곳’을 찾아가거나 마음으로 떠올리면 ‘그 때’
 의 기억을 꺼 내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장소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한다. 그리
 고 그것을 무언가 가 혹은 누군가가 듣기도 한다. <이곳에 잠깐 놓아두려고요>는 이야
 기들을 무선 통신 신호로 만들어 특정 장소에 놓아두는 작업이다. 신호는 무언가, 누군
 가의 접속을 기다린다. 닿을 수 있을까. 기억이 이어질 수 있을까.

(사진: 이야기)



<NO SIGNAL> 6채널 비디오, 사운드장치, 2021 by blblbg

모든 것이 부서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것은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던 이의 이야기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환대를 받는다.

(사진: 이야기)



<점액> 영상, 옥사, 조각, 끈, 광목, 혼합매체, 2021 by 무밍

기억이 남기는 것은 반짝이는 점액질의 길. 무거워서 꿀꺽 되새김질 뱉기. 저는 가게 많아 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도착한 홍콩에서 강정으로 강정에서 다시 여기 저기로 쭈욱 주욱 먹고 자랐습니다. 맛있는 몸이 지나는 길이 벽을 타고 오릅니다. 촉촉하게 보호해 줘. 상처를 매만져 줘. 이 점액의 길은 부드러운 몸이 스르륵 미끄러지게 해. 곧 나는 다른 점 액의 길을 따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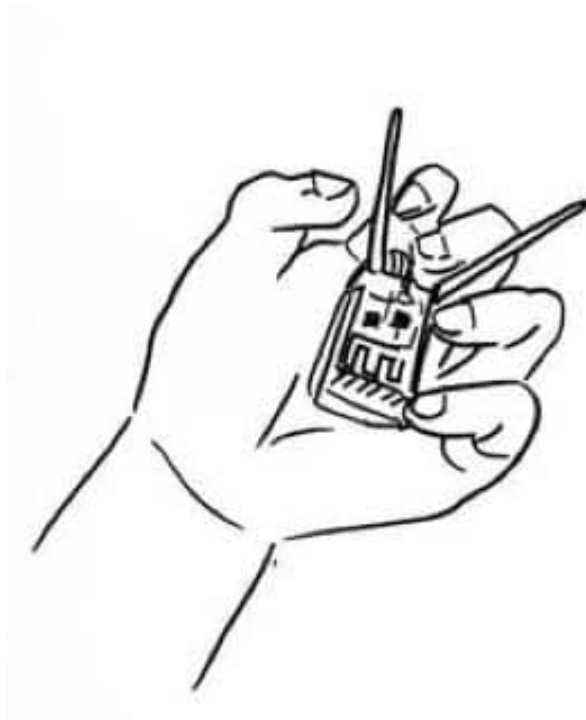
(사진: 이야기)



<흘러가는 진 퍼레이드> 웹 화면 설치, 4채널 사운드, 2020 by 노들장애인야학 진 수업 고 지선, 김경남, 김수진, 김장기, 김주희, 김희숙, 박만순, 박성숙, 박소민, 박주원, 박희용, 손원 주, 신승연, 신현상, 정지민, 이봉규, 이승미, 이연옥, 임기하, 정혜운, 최재형, 황임실

서울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 낮수업에서 진(zine)을 만드는 창작자 22명이 5년간 만든 진 이 미지 300여 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행진하게 만든 작품.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진의 윤리에 따라, 작품에 참여한 개개인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어가 아닌 형태로 그리거나 외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의 신호로서,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로 움직인다. 이 퍼레이드는 관람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이용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진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가 있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스크린리더를 통해 들어서 관람할 수 있다. <https://pzzz.ink>

(사진: 이야기)



전시연계 프로그램 1와이파이 진 워크숍

와이파이 진 워크숍 (wi-fi zine making workshop)

거리나 카페, 지하철에서 와이파이(wi-fi) 신호를 검색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신호들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순간과 장소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한 줄의 메세지이거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공공장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와이파이 서버를 만들어 나만의 메시지를 공중에 뿌리고, 접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만들어보았습니다. 작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와이파이 진 (wi-fi zin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특정한 다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신호로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시: 6월 18일(금) 13시~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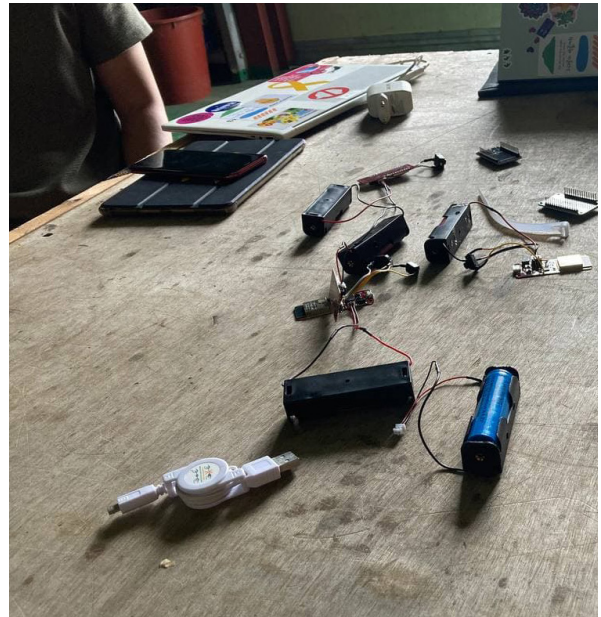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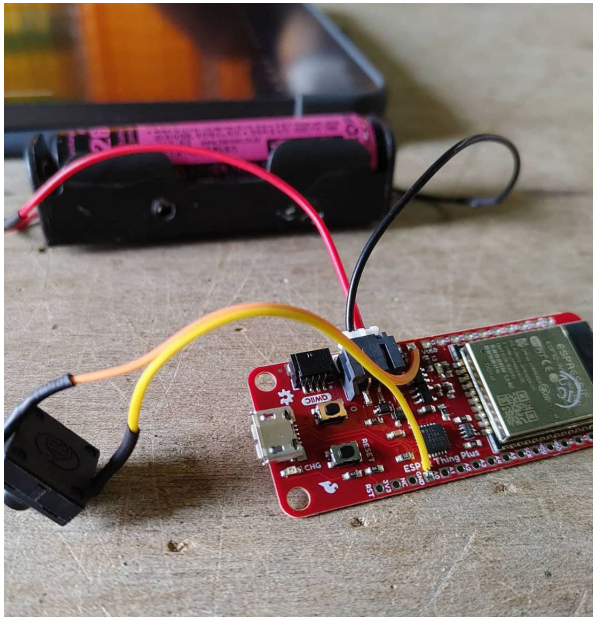
-장소: 문화공간 비수기(강정평화상단 선과장)

-진행자

원정

사물, 매체, 상황,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 관계를 엮는 작업자이다.

<https://fragments1444.ink/Wonjung/>



(사진: 이야기)



<항구로부터, 신호> 전시가 열리는 강정평화상단 선과장과 강정마을 일대를 '와이파이진(wi-fi zine)'의 신호들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걷기 이후 전시장으로 돌아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Jbi6YFQ_jc

#2 신호와 함께, 걷기

2021년 7월 1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로터리에 울리는 와이파이 신호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청정제주를 쓰레기로 오염시키지 마라!' 스피커를 통해 찢렁찌렁 울리는 소리(모바일 인간 띠)와 함께 <항구로부터, 신호>의 전시 연계프로그램인 '신호와 함께, 걷기'가 시작되었다. 도로 위 표시판에 보란 듯이 쓰여있는 해군기지 로터리를 보며 행진한다. 어느 밤 바다를 가로막은 펜스와 경찰들을 마주하고 무서움이 떨던 시간과 장소가 떠올랐다. 나를 아주 오랜만에 강정으로 이끈 '신호'라는 말을 입속에서 빙빙 굴려본다. 한 사람은 스피커를 손에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전화로 와이파이에 얹힌 신호를 반복해서 재생한다. 나는 걷기가 시작되었을 때 받은 실로폰 장치를 열심히 움직이며 와이파이 신호들과 조화를 이루고 싶었다. 신호들에 귀 기울이며 강정 앞바다까지 함께 걸었다. 강정천을 따라 강정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무참하게 폭파되었던 구럼비 바위를 떠올렸고, 뜨개질 행동에 참여했던 겨울이 떠올랐다. 환멸감이 압도하여 무력감을 느끼던 시간과 장소들을 지나 뺄추새 소리와 열매들을 소개하는 상냥한 사람들의 뒷모습에 감탄하였다.

- 항구로부터, 신호 by 동무비평 삼사 2021. 9. 26. <https://review34.kr/101>

문화공간 비수기 기획 화해영
주최/주관 비수기 연구소 × 강정평화상단
후원 강정친구들, 아름다운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공간 비수기

Corall universe

고현중
심운정
이소정

2021. 8. 18~8. 31 11:00 ~ 18:00
휴무 없음

문화공간 비수기 강정평화상단 선과장
제주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코랄 유니버스 coral universe》

‘코랄 유니버스’는 연산호(soft-coral)를 매개로 다양한 감각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바다속을 산호 우주 세계로 상정하여 영상, 미술, 사운드, 설치, 움직임 등으로 펼쳐진다.

참여 작가

고현종 | 심운정 | 이소정

기간

2021년 8월 18일-8월 31일 (11-18시, 휴무 없음)

장소

문화공간 비수기 (강정평화상단 선과장)

제주 서귀포시 말길로 137번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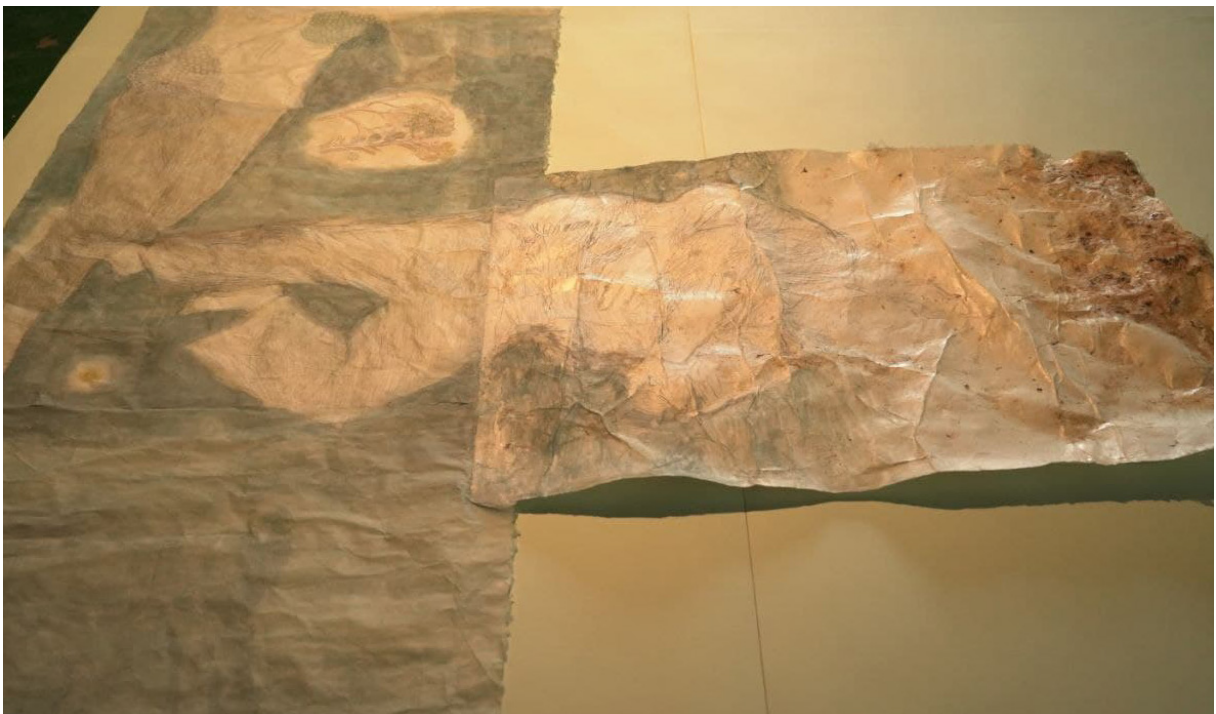
기획 최혜영

포스터 디자인 이명재(사과나무)

움직임 워크숍 진행 김바리

주최/주관 비수기 연구소 x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후원 강정친구들, 아름다운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카이런> 혼합매체(한지위에 연필과 수채, 우미), 가변크기, 2021 by 고현종
“카이런은 토성궤도의 안쪽에서부터 멀게는 천왕성궤도 바깥에 이르기까지의 독특한 공전궤도를 하고 있는 미행성이다. 그리스 신화 속 카이런은 어쩌다보니 실수로 맞은 독화살의 상처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제우스의 도움으로 영원의 굴레를 끊고 사수자리 별이 된다. 상처와 치유-회복을 상징한다.” 남은 시간동안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

* 고현종은 어떻게하면 평면에서 되도록 평편할 수 있을지, 한편 환원에 대해 고민중이다.



땀



업싸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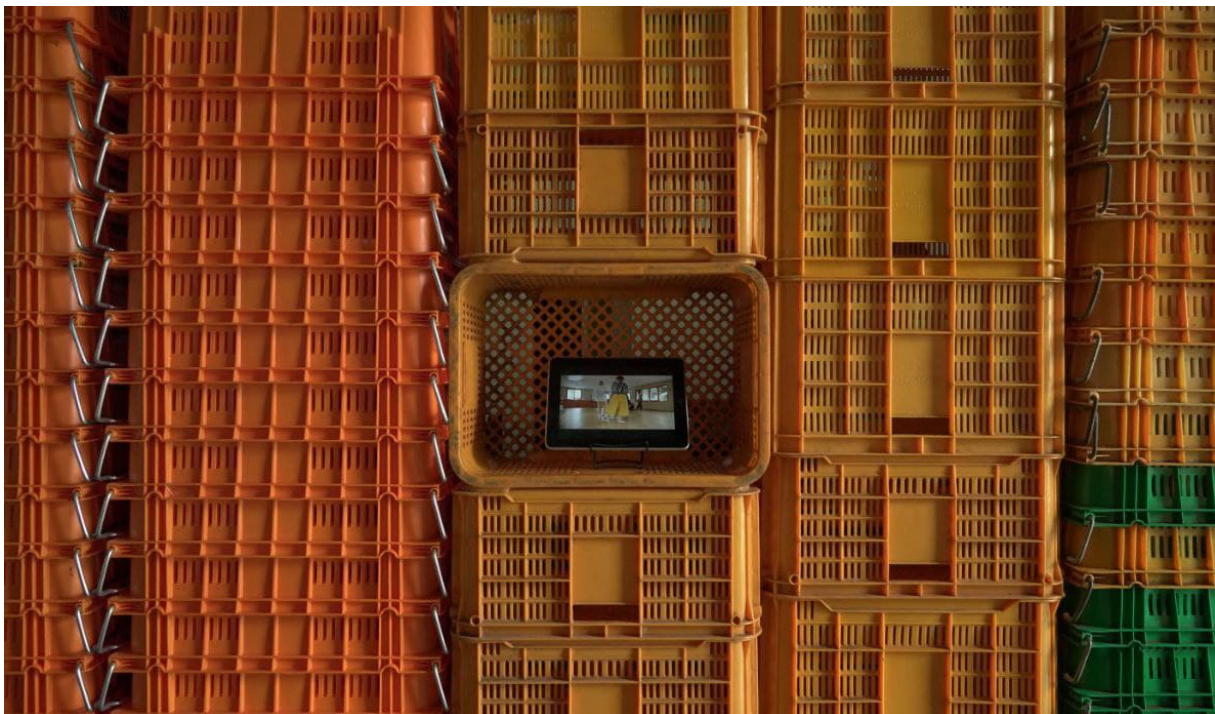
장면

<없는 노래> 사운드, 2021 by 심운정
'제주 바당 연산호 기록 <코랄 블루>(최혜영, 2021)'의 사진과 바다 속을 촬영한 영상을 사운드로 그렸다. "노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 심운정은 전통 타악기 연주자, 임프로바이저로 음악의 탈경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버블사워> one chanel video, 2.39:1, 10 min, 2021 by 이소정
한 다이버가 물속을 여행한다. 그는 알 수 없는 물의 흐름에 휘말려 표류한다.
* 이소정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기반으로 실험적 영화를 만든다. 광학 매체의
운동성과 시간성을 통해 내러티브를 직조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함께 작업한 정혜
린은 청각과 촉각이 거의 동일해지는 감각적 시점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움직임 워크숍’

우리는 관계하고 반응하는 몸으로 물의 기원을 품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과 자신, 상대방과 공간을 인식하고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고 듣는다.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나와 너와 공간의 경계가 자유롭게 넘나들며 너울의 춤을 춘다. “우리 몸은 태어나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물과 접촉되어 있어요.”

진행 : 김바리

참여 : 고현중, 심운정, 이소정, 최혜영, 준, 휘, 보라, 늘보 편집 : 이소정(영상, 14분 6초, 2021)

멀리 — 서

골 \ 짜 / 기 \ 가

Grace Kim

김성은

2021.
8.18~8.31 11:00 ~ 18:00
휴무 없음

문화공간 비수기 전시장 2 강정평화상단 선과장
제주 서귀포시 말집로 137번길 7

문화공간 비수기 기획... 최혜영
주최/주관... 비수기 연구소, 강정평화상단
후원... 강정친구들, 아름다운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김성은의 개인전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는 예멘에서 온 친구와 우정을 담은 영화를 만들던 겨울, 제주의 빈 곳들을 찾다 우연히 지의류와 마주하게된 여정을 담은 비디오 에세이 작업이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성을 마주하는 방식 - 계획과 다르게 촬영된 영상들, 확장된 기록들, 우연히 포착된 시공간들 - 과 스크린 앞의 존재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시청각적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며 영상과 나 자신, 영상과 관객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질문한다.

기간: 2021년 8월 18일-8월 31일 (11-18시, 휴무 없음)

장소 : 문화공간 비수기 전시장 2 (강정평화상단 선과장)

기획: 최혜영

포스터 디자인: 이명재(사과나무)

주최/주관: 비수기 연구소 x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멘에서 온 친구와의 우정을 담은 영화를 찍고 있었다. 떠나간 사람과 그녀를 기억하며 섬의 빈 곳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겨울 성산의 민오름에는 섬이 숨을 쉬는 구멍-숨골-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올라갔다. 숨골은 동굴과 연결되어 있고 제2공항이 들어올 부지 아래 조사되지 않은 동굴이 많았다. 공항을 짓기위해 첫번째로 확장된 비자림로에서 나무들이 잘려 나갔다. 남은 숲을 지키려고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그린씨와 숲의 노래를 지었던 선경이 함께 민오름을 올랐다. 작은 숨골 두 개를 찾고 나서 길을 잃고 헤매다 오래된 공사 현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4-5m 깊이의 인공 골짜기들이 이어져 있었다. 잿빛 초록색의 지의류로 덮인 골짜기였다. 제주 땅의 속살까지 파놓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던 10여 년간, 지의류가 바위 표면에서 풍화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바위는 흙이 될 것이고 그 위에 우연히 씨앗이 날아든다면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 영상은 영화라는 매체에서 내가 우연성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최초의 기획안과 실제로는 다르게 촬영된 영상들, 확장된 기록들, 우연히 포함된 시공간들에 대한 에세이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몽타주나, 파열, 반복이나 변주 등의 장치들을 접근성의 맥락에서, 스크린 앞에 있는 존재와 어떻게 다시 관계 맺을지 고민하면서 작업했다. 또 번사나 라이브음악 등으로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덜 제한적이었던 무성영화의 장치를 빌려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만들면서 발견된 틈에 텍스트를 놓고 읽음으로써 조금 더 접근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초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1채널 비디오, 2021 by 김성은
 <환대의 무늬1> 디지털 프린트, 1190x670, 2020 by 김성은
 <환대의 무늬2> 디지털 프린트, 1190x670, 2020 by 김성은

<강정예술행동보고서>

문화공간 비수기 상설전 <강정예술행동보고서>는 2020년 비수기연구소와 강정활동가들이 참여 연구한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연구보고서를 시청각 아카이브의 형태로 설치한 작품입니다. 굴컨테이너 속 4채널 오디오 설치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볼 수 있는 웹 페이지/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정마을 예술행동주의 사례연구’ 속 내부토론 내용과 주요 사례가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수치로 본 2021 문화공간 비수기〉

- 5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3개의 부대 프로그램(전시연계 프로그램) 등 총 8개 프로그램 진행
- 휴관일 제외 총 46일 공간 오픈, 12회차 프로그램 진행
- 문화공간 비수기 운영진을 제외한 협업 단위 총 59인(팀)
- 관객 연인원 462명 / 일일(회차) 평균 10명
- 비수기 영화관 5회차 진행. 연인원 78명, 회차당 평균 16명
- 항구로부터, 신호 25일간 진행. 연인원 292명, 일일 평균 12명
- 코랄 유니버스&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14일간 진행. 연인원 92명, 일일 평균 7명

*해당 전시기간은 제주지역 코로나 4단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

*상설전시는 별도로 관람인원 체크 하지 않음

- 지역언론에 총 16번 소개

〈언론 보도내역〉

- 강정 감귤선과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두 개의 전시 / 제주매일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090>
- 서귀포 감귤 선과장에서 펼쳐지는 이색 ‘문화예술’ / 뉴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168752>
- 무한히 팽창하는 또 하나의 우주 ‘바다’ /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95>
- 비수기 감귤 선과장, 예술이 스며들다 / 제주일보 <http://www.lpk.kr/news/article.html?no=34779>
- ‘투박한’ 선과장이 예술 공간으로 /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723055>
- 제주 KBS 탐나는제주 현장속으로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AAK95gPylso>
- 제주 KBS 1라디오 살앙조은 제주 목요초대석 인터뷰
- 제주방송 KCTV 뉴스 <https://www.kctvjeju.com/news/view.kctv?article=k173557>
- 모든 게 끝났다 느낄 때 감귤 선과장 문화공간이 보낸 신호 / 한라일보 <http://m.ihalla.com/article.php?aid=1625533627710782036>
- 강정 감귤 선과장이 문화공간으로! ‘항구로부터, 신호’ 전시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954>
- 제주 어느 감귤선과장에서 전시되는 가지각색 사람들의 ‘신호’ / 헤드라인 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761>
- 제주 섬에서 경험하는 ‘배리어 프리’ 공공예술 / 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503>
- 제주에서 보기 힘들었던 예술영화? 이제는 ‘문화공간 비수기’에서! / 헤드라인 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52>
- 비수기 서귀포 감귤선과장에 다시 피는 문화의 꽃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21310020708137036>
- 도민 제1문화선택지, ‘영화’ 코로나로 치명타...활로 모색 ‘과제’ / 뉴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777>
- 옛 감귤선과장에서 감상하는 ‘독립예술영화’ / 뉴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678>

〈SNS를 통해 확인한 관객 피드백〉



좋아요 1개

#제주전시 #코랄유니버스 #멀리서골짜기가깊어지고

감굴 선과장을 비수기 기간동안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넘 멋진 공간. 제주 있는 동안 이 공간의 전시를 또 볼 수 있어 기쁘다 😊 연산호의 빛깔과 인간이 만든 쓰레기들, 조그만 지의류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카메라의 시선이 기억남는다. 인간이 보기 쉽게 전시되어있는 제주의 자연이 아니라, 조심스레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바다 속과 오름 위의 자연의 모습이라 더 반가웠다. 안녕!

관덕후 친구들과 #항구로부터신호 전시 마지막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감굴 선과장을 쓰지 않는 비수기를 활용하는 이름도, 취지도 멋진 문화공간 비수기 @spacebisugi 선과장의 쌓여있는 물건을 활용한 전시 배치와 하얀 스크린이 아닌 계기판 커버, 늘어선 천, 감굴 박스, 레일 가림막에 흘러가는 여기 저기 영상들과 연결을 말하는 텍스트를 보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도 풀고 남쪽에 온 김에 강정천에 발도 담고 갑니다 🌊 바닥난 영감은 가만히 있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 여행을 못가는 대신 예술가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좀 다른 여행을 해야겠어요!!

섬 남쪽 강정 마을에서 멋진 전시를 하기에 다녀왔습니다. #항구로부터신호. ✨ 서점원은 이 전시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마지막 몸부림, 발버둥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어찌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야기가 꼭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신호가 되어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문화공간비수기 는 겨울에 마을에서 수확한 굴이 모이는 #강정평화상단의 선과장이고 여름 비수기엔 여러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협업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5일까지 열리니 @spacebisugi 계정을 참고하고 한번 방문해보세요!

"이 전시는 세상의 무수한 항구와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다.

... 신호는 광막한 밤의 별들처럼 드문드문 떠서 서로를 비춘다"

■ 무명에서 전시 안내 자료도 배포 중입니다.

전시를 관람한 후 꽤 오랜 시간, 생각을 곱씹고 있다. 환대와 조각, 경계와 차별, 익명성과 모호함에 대해서.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건 "NO SIGNAL" (bibibg, 2021) 앞이었다. 나무상자에 톱 걸쳐진 천 위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폐허의 도시. 정렬되지 않은 종이 문치를 집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것을 끝까지 읽을 거라 생각 못했다. 일본 도호쿠 지역, 지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폐허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있었다. 덤덤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악과 음식을 나누고, 해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가의 메모들이 빠르게 읽히고 내 머릿속엔 어떤 풍경이 그려졌다. 올 여름이 시작될 즈음,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차라리 세상에 재앙이 오면 좋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누구도 돈과 명예, 권력, 경력, 학력, 위계, 차별, 혐오를 추구하지 못할 테니까. 그저 하루를 잘 살아낸 것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먹고, 잘 잔 후 햇볕과 바람을 쐬면 행복할 테니까. 하지만 이런 단상이 옳은지, 인간다운지, 도덕적인지 고민하다가 입밖에 내지 못했다. 4개(?) 채널로 보여주고 있는 그 곳의 모습은 무한 반복 중이었다.

<항구로부터의, 신호>는 그랬다.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한 건지? 누가 작가이고, 누가 장애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모든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화법을 따라 세련된 형태로 전시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예술일까? 의문이 들었다. 예술이 뭐지? 그리고 이내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는다. 익명을 추구하는 태도가 그것을 보여준다. 익명의 존재는 명예와 경력을 쌓는 행위와 무관하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굳이 규명할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것. 함께 하는 것. 존중하는 것.

노들장애인야학 참여자 22명이 5년 동안 제작한 이미지 300여점으로 구성된 "흘러가는 진 퍼레이드"(2020)는 각자의 핸드폰 접속으로 퍼레이드에 동참할 수 있었다.

<https://pzzz.ink>

올 여름 크고 작은 역할로 관계하게 된 현장과 관객으로서 방문한 현장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할 여유가 없어 조바심이 난다. 전시가 종료되기 전에 리뷰를 쓰고 싶었지만, 결국 이틀이나 걸렸다. 너무 늦지 않게 좀 더 긴 글을 쓸 수 있기를 다짐하며. 좋은 전시 고맙습니다. 🙏

KBS제주 2021.07.22 방송

<https://youtu.be/AAK95gPylso>

그곳에서 미약하지만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제주도 강정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불법 공사와 국가폭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예술)로 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강정 해군기지 뿐 아니라 소수자, 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말한다.

창의성을 사용하여 인식을 높이고, 동원하며, 관중을 고무시키는 것, 창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인식을 통해 변화를 구체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다.

주말엔 늘 남몰래 애정해왔던 #다이애나랩의 전시를 보러 강정에 다녀왔습니다.

강정이라는 마을,
오랫동안 항구로써 어떤 신호를 보냈을 곳

그리고 지금은 너무 힘이 강해져버린 항구의 신호에 오히려 갇혀버린 것 같은 무감각한 우리에게 다시, 어떤 신호를 보내오는 전시.

마음 쓴 곳이 너무 여러곳 보여, 마음이 몽글해질 정도로 따뜻해졌던 전시였어요.

#문턱없는입구 #수어해설영상 #점자리플렛 #큰글자리플렛 #휠체어 #휠체어접근가능 #성중립화장실 #동물과동반입장가능 물론 #유아입장가능 무려 #뛰어도됨

사진과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다 올리고 싶었지만 인스타는 10장까지 밖에 허락을 안하네요.

7월 25일까지 전시한데요.

월, 화는 휴무이고요.

직접 보시는 것, 아니 보고, 듣고, 느끼시고, #장소특정적미술 (?)도 경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누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대의공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 추천해봅니다. 💕

‘항구로부터, 신호’ 전시. 팬심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한대의 조각들] 전시 일화인데, 이번에는 강정마을에서 제주 친구들과 다이애나랩이 함께 했다. 토요일은 연계 프로그램인 ‘신호와 함께 걷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꽤 긴시간 강정마을 일대와 전시공간에 머물 수 있었다. 해군기지 앞 로터리(이제는 이런 이름이 붙어버린)에서 인간띠잇기를 시작으로, 강정마을 활동가들과 행진도 하고, 오랜만에 삼거리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더위도 많이 먹었지.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부채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가 적당히 싸우고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일거다. 미안함 마음과 환멸감 사이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변화하는 시공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곳에 잠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다. 이 어불이논 농성장이란 이름으로 뜨개질 연대에 참여했던 기억도 났고, 강정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찾아 막연히 그 곳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고, 종말 무서웠던 시위현장도 기억났고. 그치만 이날은 비 예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쨍쨍한 날씨 속에서 강정천을 따라 바다까지 걷기도 했고, 신호와 함께. 전시 공간을 찾아 한참을 걸으며, 과연 항구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짧은 레퍼런스와 이야기로만 접하던 2019년 퍼레이드 진진진 영상도 보았고, 00씨의 동일본 대지진 현장 기록도 보았지. 무엇보다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한 바닷가 마을 창고(강정평화상단 감귤 선과장이란다)가 굉장했다. 어쩔 이리 사물들과 기구들을 아름답게 활용했는지...감탄감탄. 시각적 이미지를 말로 전환해서 소개하는 구성이 언제나 좋고, 전시공간에서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메시지도 정말 재밌었다. 향과 소리, 이미지와 말 그리고 전시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화장실, 연대하는사람들의 기록전시까지. 감염병으로 하늘길이 막혔다면, 제주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많이 전시 보면 좋겠다 생각이다. 땀 뚫린 하늘을 볼 수 있고, 모든걸 용서해줄 것 같은 바다가 모두의 안녕을 지켜주면 좋겠다. 하늘과 바다에 항상 받기만 하는 엄지없는 마음이다.#항구로부터신호 @fragments_1444 @infoshop_cafe_byulkkol

성수기로 돌입한 제주의 가장 한가한 비수기의 창고에서 작은 전시가 있다.

전시를 압도하는 것은 공간인 것 같은데, 창고 안 컨테이너박스나 패레트같은 삶과 노동의 잔재를 위에 달리 주목받지 못해왔던 또 다른 삶들이 겹쳐져 묘한 잔상을 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섹션은 노들에서 기획한 거리 행진일과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각자가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순간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뭔가 성취하려고, 예술 활동을 하고 등등 그 발화의 시작점이 나를 호명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도 어쩔지 같이 소리치려고 싶어졌다.

바람에 흔들리듯 실로폰 소리가 난다. 예쁜 소리의 환영 아래로, 폐허로 향한 이의 이야기에 나도 함께 울지도 울지 않을 수도 없어진다.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할 때쯤에 그 순간 살아,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들의 사랑에 외려 따스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연결된다. 실로 칭칭 감은 움직임은, 함께 저항하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마음을 통합하는 연대의 살아있음에 열쇠를 주는 것만 같다.

폐허가 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움직임, 더 많은 폐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작은 점거들이 계속 꿈꾸고 있음을, 배려와 선택, 연약함과 강인함 사이의 흔들리는, 끈적이고 가볍고, 묵직한 길들이 전시장 공간, 공간에 나즈막히 소리내고 있다.

결코 다 알 것 같다고 말 할 수 없는 여러 빛깔들 사이에서 어렵게 빛나는 신호, 나는 혼자 이 신호들 사이에서 "그러니깐 살아있어도 돼"라는 작게 접힌 쪽지를 받은 것만 같아 더 웃고 싶어지고, 더 울고 싶어졌다. 이 마음, 이 신호 다른 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강정마을 비수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항구로부터, 신호>, <강정예술활동 보고서>는 수 많은 구조 신호들 속에 누군가 함께하고 싶어질 수 있도록 빈 자리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혹은 질문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자리를 여럿이 함께 해주길,

강정평화상단 선별장에 차려진
[항구로부터, 신호] 전시관람을 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행동은 언제나 새롭게 아픈 질문들을 생성해 낸다.
끊임없이 꿈틀꿈틀대며..하나의 몸짓이 적어도 두세개의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들이 작은 파장과 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동안...시공간은 언제나 긴박하게 뒤돌리고..흔들리게 되는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어떤 안부를 묻기보다
그 질문들에 답하기위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감사한 분들〉

그린씨, 선경, 배나무, 카페별꼴, 한진오, 고현종, 심운정, 이소정, 정혜린, 김바리, 준, 휘, 보라, 늘보, 이명재(사과나무), 반디, 보말, 시후, 지웅, 강정친구들, 할망물식당, 김종환, 공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이성준, 자리타, 하늘, 노들장애인야학, 무밍, biblbg, 신원정, 화용, 세원, 다예, 장진석, 이야기, 지로, 109, 두호, 다이애나랩, 고지선, 김경남, 김수진, 김장기, 김주희, 김희숙, 박만순, 박성숙, 박소민, 박주원, 박희용, 손원주, 신승연, 신현상, 정지민, 이봉규, 이승미, 이연옥, 임기하, 정혜운, 최재형, 황임실, 송주원, 공영선, 김윤하, 김민재, 김이영, 백지영, 이병엽, 유형욱, 윤세영, 장성희, 전영훈, 한 빛, 강예은, 장시우, 문수아, 손다영, 이소민, 조민성, 조은, 정금자, 이수일, 이영주, 이은주, 이유진, 오민애, 김예은, 최희진, 전소현, 황세원, 나애진, 친구사이, 이동하, 김민경, 정철민, 강상우, 강이다, 엄윤주, G_Voice, 이종걸, 오웬, 노르마, 하띠, 개척자들, 방은미, 김희영, 송성호, 구름비유랑단, 인디그라운드, 영화진흥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아름다운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